



◇알라하바드 상감축제 (172×137cm).

# 인도 그림기행 19

그림·글 이호신

## 은하의 강과 만인의 노래

### (인도 청년과 상감 대축제)

“형님, 잘못하면 때려 주십시오.”  
 한국말을 스스로 배웠다는 가이드 라전싱(Rajan Singh, 26세)은 델리 대학을 나온 재원으로 운전석 칸에 다가가 뒷좌석 틀어대는 내게 모든 것을 친절히 답해준다.  
 지구촌의 가족으로 어느덧 마음이 통해 형제애로 맺은 아름다운 만남. 그러나 그의 말속에서 한국인의 언어관습이 그냥 농담으로 지나치기엔 오해의 소지가 클 법도 하다. ‘잘못하면 때려달라’, 도대체 누가 일러준 말인가.  
 경제적 자립과 공부하는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주로 한국인을 위한 관광 통역가이드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는 라전싱. 그는 준수한 외모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청년으로 세계의 종교를 영적으로 통합,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저서를 내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스물여섯의 청년으로 대담을 가진 그는 틈틈이 영문 독해를 노트에 옮기며 빈틈을 아끼는 성실한 모습속에, 가끔씩 하는 말은 인도인의 자긍심으로 뽐낼 듯 들려온다.  
 “형님, 인도는 언젠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어떠한 종교든지 다 받아들이고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영적, 정신문화로서 이념과 종교의 대립을 위해, 수용하는 터전과 전통으로 인도만 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따지지 않고 순순히 그의 말을 경청해 주었다. 아직은 너그러운 형이 되어주고 싶어서...  
 오늘(1월14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사흘 동안 열린다는 추수감사절(Harvest Festival)은 남부인도에서는 풍감(Pogal)축제로 유명하다. 햅쌀로 밥을 지으며 모든 가족들을 강으로 데려가 씻기고 여러 장식으로 동물들을 치장하는 의식이 있단다.  
 그 행사에 동참하려는 마음인가. 운전사 란지트 꾸마르(Ranjeet Kumar, 25세)는 이마에 노란 칠과 붉은 점을 찍고 그 특유의 웃음을 띠우며 운전석에 오른다. 그리고 운전대 앞에 모셔둔 삼지창을 든 시바 신(神)께 향을 피우고 예를 올린다. 기도인즉 오늘도 무사히 안전운행의 행운을 지켜달라고. 신혼인 꾸마르는 아내를 차기에 맡겨두고 장거리 출장 중인데 운행중에 결근질과 말을 삼가는 것이 철칙인양 열흘이 지나도록 침묵속에 운전대만을 잡고 있다. 그의 끈기와 집념은 참으로 무서울 정도인데 아무리 속도를 권해도 조수(디네스)와 꼭 차에서 짐을 자며 찬 새벽이슬을 털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그들의 의식으로는 운행기간엔 차와 함께 사고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상 매일 새벽 안개를 뚫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꼭 짜인 행로를 일행은 꾸마르 청년 하나를 믿고 졸면서 간다. 거리의 종횡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운전석간을 들락거리는 나는 5m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속을 그냥 감(感)하나만 믿고 질주하는 차에서 사실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다년간 무사고 운행에다 열악한 도로 사정을 휘히 꿰고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꾸마르의 진지한 자세가 일행을 잡들게 하였다.  
 특히나 하루 12시간을 주행을하면서도 피곤해 하지 않는 표정이며 앞창의 뽀얀 안개로 운전석에 앉은 검은 꾸마르의 뒷모습은 어느 순간 마치 붓다의 상(像)으로 연상되는 느낌이였다. 하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한 붓다의 길이나 일행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저 의지의 청년 꾸마르의 마음이 하등 다를리 있겠는가.  
 어쩌다 소변을 위해 잠깐씩 차를 세울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꾸마르, 베스트 드라이버!”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외쳤고, 그는 만족한 듯 씩 웃

으며 엄지손가락을 내세우며 응답한다.  
 그렇게 깊은 안개를 뚫고 종일을 달려 노을이 지고 이내 별이 돌아오른 시간, 차는 마침내 바라나시로 가는 길목, 알라하바드를 달리고 있었다. 수많은 차들이 갑자기 몰려 고가도로 통행이 자주 끊기는데 사정인 즉 인도 최대규모의 대축제 ‘상감(Sangam)축제’가 다리 밑에서 열리고 있는 탓이다.  
 정차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다리 밑을 살펴보니 천막과 보트, 그리고 사람들이 한도 없고, 은하가 잠긴 강물은 흰광목을 풀어 놓은 듯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행운의 여신이 듣는 날이다. 잠시나마 저 엄청난 인도 최대의 축제를 실감해 볼 수 있단다.  
 바라나시의 서쪽 135km 지점에 위치한 알라하바드는 예로부터 뿌리 야그(Prayag)라 불리며 하르드와르, 나시, 우자인 등과 함께 힌두의 4대 성지로 불린다. 알라하바드란 ‘신이 사는 곳’이라는 뜻인데 마을 북쪽을 흐르는 갠지스강과 남쪽의 야무나강이 만나는 지점을 상감(합류점)이라 부른다. 그리고 지하로 흐르는 사라스비티 강도 함께 만나 트리베니 상감(3개의 강이 합류하는 곳)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축제를 통해 공동체와 화해의 시간을 갖는 민족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듯 하다.  
 또 매년 1~2월의 축제 이외에 12년마다 한번씩 꾸부 메라 대축제가 열려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축제는 힌두의 4대 성지를 3년마다 순회하며 열린다고 한다.  
 축제는 대낮 태양 아래 펼쳐지는 것이 장관이겠지만 한편으로 별빛 아래 풍광도 이채롭다. 즉 강물과 함께 흘러가는 만인송(萬人頌)이 어둠속에서 은근하게 들려오는 느낌이다. 간다 이후 인도국민에게 존경을 받았던 네루수상의 유해도 이곳 강물에 뿌려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강을 지나자, 별빛은 그세 등 뒤로 사라진다.  
 인간의 희망으로 별이 뜨는가, 별이 돌아 꿈을 살리게 하는가, 별빛이 내린 저 강물속에 내 작은 소망도 함께 띄워 보내고 싶다.  
 lhs1957@lycos.co.kr



◇가이드 라전싱과 운전기사 꾸마르 (38×46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 과거의 죄 강물에 띄워 보내고

천막·보트·한없는 인파에 최대축제 실감  
참회와 공동체 확인하는 민족의식 담아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 행운을 소원성취척척

#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2문제 맞추지 못해 낙방하는 수험생이 50%이상 된다는 통계를 보면 이것은 실력의 문제 보다 마음의 안정이다. 그러므로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몸에 꼭 지니고 가야합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문제 고 고민하시는 분, 부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들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는 수험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날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힘이 발산되며 정전 발전기 일년무야 되는 세계 유일의 염주입니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신 후 사용하실때 꼭 개봉해야 하며 사할에서는 부터님 앞에 놓으시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7치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년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되며 필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전화로 주수 상담을 원하시면 우체국 통기소로 전국 어디서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락동 177번길 6/D40608

상쾌한 속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 과 강한 흡착 및 살균작용으로 죽이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마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놓으면 붓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10분 내로 정상하게 살아납니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남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지체, 고혈압, 천식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기와 같이 길게 숙면을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몸이 쭉뚝뚝하고 목이 뻣근하며 어깨가 뭉쳐있는 것도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또한 전신통 기침을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면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보름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계속해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은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생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를 사용하신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처럼 사용하고 7일만 사용 하면 입냄새는 없어지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릎, 잇몸농종, 찬 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되어요. 1set면 1년정도 사용하며 온 가족의 치아를 건강하게 되시려는 생각으로 치아입니다. 본 제품은 사용해 보신 분들의 의해 그 진가가 더욱 증명되고 있습니다.

\* 1set 가격은 60,000원입니다.  
 문의전화는 (02)722-2890입니다.  
 ◆농협: 360-12-046446 최 능우